

“국방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새로운 개혁 시작될 것”



이두희(왼쪽 셋째) 국방부 차관이 주관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이날 내년 중순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병문 기자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해야”

국방부가 17일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 회의를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속도감 있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한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 각 분야 개혁(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특히 ‘국방개혁 추진 기조’와 분야별 중점, 부서별 검토 중인 과제 발전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안) 마련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 가속화 △국방개혁 추동력을 보장하는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국민 공감과 지지 확보 총 다섯 가지를 국방개혁 추진 기조로 정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연말까지 분과별 심층 토의, 관계부처 협의, 학계·연구기관 자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월 단위 장·차관 주관 평가회의를 통해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주 단위 분과장 토의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날 “오늘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환경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회의”라며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육군인사사령부, 인사 관리·교육훈련 역량 인정받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육군인사사령부(인사사)는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수여식’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한다. 인적자원개발(HRD)과 인적자원관리(HRM) 부

문에서 모범적인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3년간 인증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는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등 2개 부문, 16개 항목, 37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현장 심사·최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인사사는 체계적인 평가제도에 기반한 인재 관리와 미래 인력 소요를 고려한 인재 육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사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육군 비전

과 기본정책서에 연계한 성과 중심의 인재 개발·관리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신은봉(소장) 사령관은 “이번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육군의 인사 관리와 교육훈련 역량이 우수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와 체계적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육군인사사령부 주요 직원들이 16일 열린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수여식에서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드론봇과 하나 돼… 운용 능력 최강자 가린다

제3회 2작전사령관배 드론봇 전투경연 112팀 참가 감시정찰 등 7개 분야 겨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도 함께 개최

육군2작전사령부(2작전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경북 구미시 구미코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2작전사령관배 드론봇 전투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과 드론봇 운용기술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군 전투발전 소요 창출은 물론, 대학·기업의 연구성과를 접목해 민·관·군·산·학·연이

함께하는 도시지역 작전수행체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연은 △감시정찰 △폭탄 투하 △기계장착 △로봇 챌린지 등 군사 활용 4개 종목과 △드론 축구 △드론 경주 △드론 경연 등 스포츠형 3개 종목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번 대회에는 군인부 35개 팀과 민간부 77개 팀이 참가한다. 아울러 ‘항공방위물류 박람회(GADLEX)’도 함께 열린다. 90여개 항공·방위산업 기업이 참여해 첨단 기술을 전시하고, 대드론체계 세미나와 방산혁신·국제산업전략 포럼을 통해 미래 드론 및 대드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 기간에는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체



지난해 열린 ‘제2회 2작전사령관배 드론봇 전투경연대회’ 감시정찰 부문에서 군인부 참가자들이 정찰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부대 제공

험·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헬기 탑승, 로봇 제작, 3D 프린팅, 드론 조종 체험을 비롯해 군악대 연주, 의장대 시범, 거리공연이 펼쳐질 계획이다.

2작전사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4일 금오공대에서 민·관·군 협조토의를 열고 세부 일정과 체험행사, 공연 프로그램 등을

점검했다.

정구환(준장) 작전계획처장은 “이번 대회는 합동후방지역작전과 연계된 드론봇 운용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과학기술 기반 드론봇 전투체계를 발전시켜 국민의 군대로서 ‘과학기술 강군’의 면모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